

한국성과 정체성의 해결책 - 방어형주택

The Answer to the Korean and its Identity  
- Defensive Housing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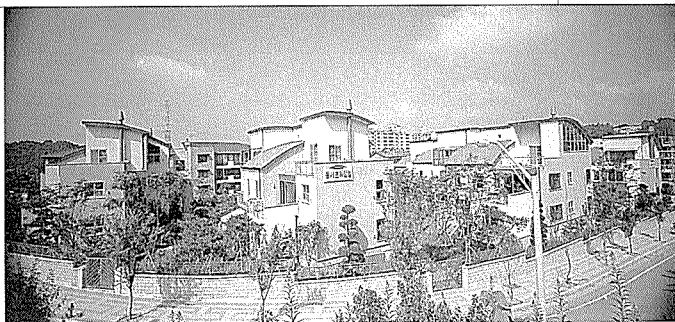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서 전환점이었던 97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 건축분야의 경향을 되돌아 본다. 건축적으로 풍부하게 구사된 작품들이 해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다. 하이테크한 기술에서나 새롭게 쓰여진 재료의 디테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형태가 아닌 공간들의 활발한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구성 등, 우리 건축이 낱알이 발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가 거듭되도 항상 코앞에 닥친 일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사람들의 작품을 총괄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건축실무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

최근 몇 년간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건축가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때이어서 그들의 작품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국내작가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서양식 교육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론적 배경과 부분적이 아닌 총체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점과 재료의 자유로운 구사와 디테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것이어서 그 뿌리를 서양의 것이 아닌 한국건축의 토양에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한다. 현상설계도 단순히 당선작에만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여러사람의 다양한 해결책을 볼 수 있고 낙선된 작품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읽을 수 있어서 좋으므로 되도록 잡지나 전시를 통해 발표하였으면 한다. 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나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 등 각종 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면서 올해의 경향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자치제이후 서울의 경우는 각구마다 이러한 상제도를 두어 우수건축물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을 받은 작품들과 몇몇 잡지에 소개되었던 작품들을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부분 등으로 나누어 정리 해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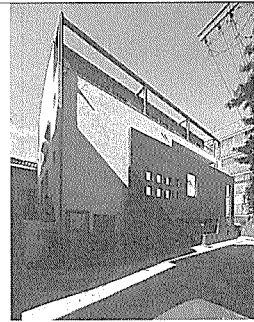
도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97년의 건축계를 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주거는 전체주거 형식의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은 지방 어디를 가도 고층아파트가 눈발을 배경으로 우뚝우뚝 솟아있으므로 그 숫자는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형식이 전혀 주거문화를 선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고 그런, 늘 보아온 평면형식과 배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주택의 분양의무비율을 없앴다, 분양가 연동주기를 단축한다 등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분양가가 자유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각 건설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매리트를 주어 차별화를 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철골조 아파트의 경우 이미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주거문화를 선도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방법이나 방재부분에서, 조경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해마다 주최하는 살기좋은 아파트로 97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대우의 부산 해운대아파트나 현대산업개발 해운대아파트의 경우 타 아파트와의 차이로 제시된 환경친화라는 것이 아파트 동간의 빈 땅에 대나무 등으로 조경을 한 것과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한 것, 웅벽의 최소화로 마운딩과 조경시설을 추가한 정도였다. 그렇게 작은 곳의 세심한 배려가 상을 타게된 동기이고 또 그런 것이 많이 모아져서 좋은 단지가 되기도 할 것이다.

97년 1월에 들어와서 다가구 및 다세대외의 건축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차장이 강화된 이 법은 완전히 다세대 죽이기로 법대로 따지다 보면 도저히 다세대로 짓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망치던 주범이 지난 일년간은 많이 축소되었다. 연립주택의 경우도 서울지역의 경우 예외가 아니어서 극히 보기 힘들다. 예외의 경우는 동호인들끼리 모여 한정되게 집을 지은 경우로 서초동의 MESOTRON(김인철, PLUS誌 97년 12월호)을 들 수 있다. 도시주거의 새로움을 탐색하는 작가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가회동 주택가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가회동빌라(송광섭, PLUS誌 97년 12월호)는 대지의 약 조건을 네 개의 중정을 두고 해결한 예이다. 평면의 해결은 작가 특유의 재치가 엿보이는데 분양면적이 100여평이나 되는 호화



분당집합주택(안병제)



노매드(김인철)

빌라의 전형을 보는듯하고 중정을 두느라고 건물의 물체가 커져서 주변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법적 제한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보다는 신도시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법적 최대용적율이 400%인 반면 신도시는 90%를 넘길수 없기 때문이다. 94년도에 시작된 분당주택전람회단지중 건영이 맡은 구획을 뺀 나머지 택지에 건설된 것들이 준공을 한 것도 올해의 일이다. 이들 단지들은 넉넉한 공지율과 낮은 용적율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아름다운 마을, 견고 싶은 동네의 가치를 결코 설계되어진 것들이다. 또 97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상을 받은 분당집합주택(동서개발/안명제)이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개념은 역시 마당, 길, 중정 등이 테마이다(시대건설/강석원 박연심, 동서개발/안명제). 그리고 몇몇개는 분당이라는 위치를 정의하여 각자가 자기의 마당을 갖고 지상권과 지하권을 갖게되는 타운하우스의 개념(쌍용건설/윤승중, 시대건설/장세양),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평면에 계단실형을 복합한 것(한일개발/류춘수, 삼성건설/김원) 등으로 되어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주변환경을 망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한다는 기존관념을 떨치고 역삼동다가구주택인 하늘마당(방철린/건축세계誌 97년 10월호)은 건축가의 끝없는 노력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세대마다 어떻게 하면 빛과 공기를 통하게 할까하는 생각들과 특히 환경이 좋지못한 지하공간에 마당을 두게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였다. 또 독립주택에 살던 주인세대를 고려하여 3층에 마당을 두어 이 집의 이름을 하늘마당이라고 칭하였다 한다. 나는 평소에 주거의 설계에는 100점이란 없다고 생각했는데-건축가와 건축주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점수로써-이주택의 경우는 정말 100점을 주고싶다. 또 하나 다가구주택 노메드(서울시건축상 동상 수상/김인철)는 다가구형식을 가진 원룸오피스텔이다. 길로 설정된 복도는 비합리적이고 비기능적인 동선이 아니라 늘릴 수 있을만큼 늘린 기다란 길(추위와 더위를 동시에 느끼며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하는 길)의 개념이다.

일정규모의 설계사무실에서 일년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설계하면 그회사 망한다는 농담아닌 농담이 있다. 그만큼 주택설계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인다는 뜻일 것이다. 또 주택은 한 건축가의 건축관내지는 삶의 철학을 강하게 표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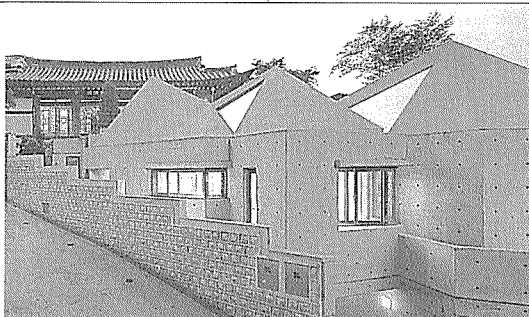
것이기에 개인의 건축위상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97년의 주택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일산주택(조병수/건축기誌 97년 11월호)이 될 것이다. 분당의 주택단지가 주거전용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무차별의 근린생활시설과 공존하고 있는데 반해 일산의 이 주거단지는 한가구만을 허가하는 독립주택단지이어서 일단 주택단지로서 성공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의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들어서서 마치 주택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주택의 L자형의 배치는 최근 몇몇 우리나라 주택에서 시도하는 마당을 도입하고 있다. 과천K씨주택(유원재, PLUS誌97년 12월호), 채한경(김병윤, 건축과환경誌 97년 2월호) 등이 이런 중정형주택에 속한다. 도시의 주거환경은 이웃 빌딩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방범 등의 요인으로 외부로는 폐쇄적이고 안으로 열리는 중정을 갖는 방어형주택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97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삼청동주택 익청각(김영섭)은 기존의 한옥과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존의 한옥의 외형을 살리고 증축부분의 주택은 최대한 볼륨을 작게 보이도록 지하로 실들을 보내어 단순하고 심플한 외관을 갖도록 한 점이 좋았다.

휴일에 차를 몰아 서울의 외곽지역인 용인, 광주, 기평 등지를 돌아보면 곳곳에 생겨난 전원주택단지에 놀란다. 그리고 한 단지임에도 통일되고 조화되지 못하는 제 각각의 스타일이 단지를 혼란스럽게 보이게 한다. 또 그곳에 통나무주택이나 목조주택이 많은 것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스컴의 영향인지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목조주택들은 하나의 택지의 땅이 넓은 캐나다나 미국의 환경에 맞는 평면형으로 우리나라 같이 100평 내지 200평정도 되는 전원주택단지에는 그 목조주택이 하나 들어오면 여유공간이 없어져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국이 되고 만다. 또 그 평면을 분석하자면 순 구식의 아메리칸스타일 이어서 우리형편에 맞는 평면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추세인 전원주택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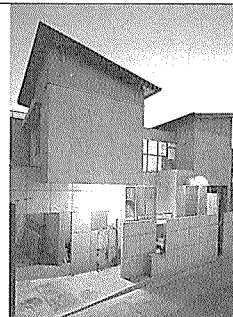
IMF사태는 국민소득증대와 함께 날이 발닫해 왔던 건축계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후 몇 년 동안은 사회 문화 전반에서 퇴보와 정체를 예감하면서 97년의 리뷰는 하나의 위안과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하늘마당(방철린)



익청각(김영섭)



채한경(김병윤)